

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

장혜진(고려대), 신지영(고려대)

<차 례>

- | | |
|------------------------|------------------------------|
| 1. 서론 | 3.2. 20대 대구 방언 화자의 단모음 |
| 2. 연구 방법 | 3.3. 20대 서울 방언 화자의 단모음 |
| 2.1. 피험자 | 4. 논의 |
| 2.2. 실험 자료 | 4.1. 대구 방언의 세대 간 단모음
비교 |
| 2.3. 녹음 절차 | 4.2. 대구 방언과 서울 방언의 단모음
비교 |
| 2.4. 측정 방법 | 5. 결론 |
| 3. 연구 결과 | |
| 3.1. 40대 대구 방언 화자의 단모음 | |

<Abstract>

An Acoustic Study on the Generational Difference of the Monophthongs in the Daegu Dialect

Hyejin Jang, Jiyoung Shin

This paper investigates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in the vowel system of the Daegu dialect in terms of F1 and F2 of the monophthongs. Three different groups of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20 female native speakers of the Daegu dialect(10 in their 20's and 10 in their 40's), and 10 female native speakers of the Seoul dialect as a control group. It has been assumed that the Daegu dialect has six vowels. However, younger generation appears to have 7 vowels different from older generation.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the Daegu dialect has different vowel systems between generations: for 40's have six vowels and 20's have seven vowels. These differences seems to be attributed to the influence of the Seoul dialect.

* Keywords: Daegu dialect, Monophthongs, Generational difference, Formant frequency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KRF-2004-074-HM004)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1. 서 론

이 연구는 대구 방언에서 세대 간에 나타나는 단모음의 음향적 차이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상도 방언은 /-/와 /ɨ/, /ɛ/와 /ɐ/의 변별이 중화된 6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세기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한다[1]. 또한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경상도 방언은 6모음 체계를 가진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2][3][4]. 대구 방언을 대상으로 한 단모음 연구에서도 대구 방언의 단모음이 6모음 체계(/i, E, ɛ/, a, u, o/)인 것으로 보고 있다[5].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자의 청각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어서 음향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객관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음향 음성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대구 방언의 단모음 실현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대구 방언이 6모음 체계를 가진다고 한 연구 결과와 달리 이 방언의 젊은 세대의 말에서는 /-/와 /ɨ/가 변별되는 추세를 보여 세대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듯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의 말에서 윗세대와 달리 /-/와 /ɨ/를 변별하여 발화한다면, 이는 세대 간에 단모음 체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대 간에 나타나는 단모음 실현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 방언의 세대별 발화를 녹음하여 모음의 포먼트 값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방언에서 단모음 실현 양상이 세대 간에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서울 방언의 영향일 것으로 보고 서울 방언 화자의 발화도 녹음하여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와 몇 가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고는 방언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가 청각적 판단에 의존하여 논의한 기존 연구와 달리 음향 음성학적인 실험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모음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둘째, 낭독체 발화가 아닌 자유 발화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쓰이는 대구 방언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세대 간 모음 체계의 변화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모음 체계의 변화 원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후 다른 방언의 모음 체계 변화나 나아가서 한국어의 모음 체계 변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1) 이 논문에서는 [ɛ]와 [ɛ]의 변별이 중화된 경우 /E/로, [-]와 [ɨ]의 변별이 중화된 경우 /ɛ/로 나타낼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피험자

대구 방언의 세대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 방언을 구사하는 40대 여성 화자 10명과 20대 여성 화자 10명을 피험자로 삼았다. 대구 방언 화자들은 모두 대구 지역을 벗어나서 거주한 경험이 없었다. 또한 세대 차이의 주원인이 서울 방언의 영향이라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화의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는 20대 서울 방언 화자 10명도 피험자로 삼았다.²⁾ 피험자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피험자 정보

40대 대구 방언 화자			20대 대구 방언 화자			20대 서울 방언 화자		
화자명	나이	타 지역 거주 경험	화자명	나이	타 지역 거주 경험	화자명	나이	타 지역 거주 경험
KYS	47	×	KSH	21	×	JKJ	24	×
PYJ	43	×	KME	21	×	KHR	25	×
PSJ	47	×	KHJ	25	×	NSE	29	×
PJS	49	×	PMJ	24	×	PMY	29	×
PMH	41	×	JSJ	27	×	JYN	26	×
UCH	49	×	JMK	27	×	KYH	25	×
LOJ	43	×	JHJ	25	×	KSJ	27	×
UJH	40	×	HYH	25	×	JSH	22	×
KMH	42	×	HAK	25	×	MCY	22	×
LTS	48	×	USH	21	×	KBR	26	×

2) 40대 서울 방언 화자를 피험자로 삼지 않은 이유는 이 연구가 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를 밝히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이러한 차이의 원인과 변화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20대 대구 방언 화자들의 발화와 20대 서울 방언 화자들의 발화만을 비교함으로써도 충분히 그 변화의 방향과 원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2. 실험 자료

실험 자료의 목록은 모두 2음절 단어로 구성하였다. 원칙적으로 실험 단어는 명사 중에서 선정하였지만 적당한 단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품사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외래어는 제외하였다.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현대 한국어의 단모음은 10개(ㅣ, ㅐ,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의 실태 조사에서 ‘ㅕ, ㅗ’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되었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6][7]. 그리고 현대 한국어의 서울말에서 ‘ㅐ, ㅑ’가 중화되어 그 변별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선행 연구들을 따랐다[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ㅣ, ㅐ, ㅓ, ㅛ, ㅕ, ㅗ, ㅜ, ㅠ의 7모음 체계를 지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실험 단어는 모두 2음절 유의미 단어였으며, 성조형은 HL로 통일하였다. HL 성조형을 선정한 이유는 이 성조형이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조형이었기 때문이다. 성조형은 전적으로 대구 방언을 사용하는 필자 중 한 사람의 직관에 따랐다. 20명의 대구 방언 화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필자 중 한 사람의 직관과 같이 실험 단어를 HL 성조형을 실현시켰다.³⁾

<표 2> 실험 단어 목록

ㅣ	ㅐ	ㅓ	ㅛ	ㅕ	ㅗ	ㅜ
이동(移動)	애도(哀悼)	아내 (妻)	은혜(恩惠)	언약(言約)	오늘(今日)	우도(牛島)
이름 (名)	애로(隘路)	아들 (子)	은행(銀行)	얼음 (氷)	올해(今年)	우수(優秀)
이슬 (露)	애송(愛誦)	아래 (下)	을일(乙日)	어린(年少)	오염(汚染)	우승(優勝)

실험 단어들은 모두 VCV(C)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모든 단어의 두 번째 음절은 치경음으로 시작한다. 치경음이 오는 단어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어의 자음 음소 목록에 치경음이 가장 많고, 또 치경음이 초성에서 실현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ㄴ, ㄷ, ㄷ, ㄷ, ㄹ, ㄴ, ㄷ가 모두 치경 위치에서 조음되는 자음이다. 이 중에서 고빈도 음소인 ㄴ, ㄷ, ㄷ, ㄷ를 선택하여 실험 단어를 구성하였다. 고빈도 음소를 선택한 것은 유의미 단어 중에서 성조와 분절음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더 많은 실험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총 21개의 단어를 2회 반복하여 피험자 1인당 42개의 자료를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의 수는 총 1,260개(단어 21개 × 2회 반복 × 30명)이다.

3) 하지만 일부 화자의 일부 발화(총 840개 토큰 중 29개, 약 3.5%)에서 이와는 다른 성조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른 성조형을 보인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장의 연구 결과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2.3. 녹음 절차

대구 방언 자료의 녹음은 모두 조용한 실내에서 이루어졌다. 녹음에는 휴대용 DAT 녹음기(Sony Digital Audio Tape Corder TCD-D100)와 핀 마이크(AZDEN Corporation Japan Piezo EX 503)가 이용되었다. 서울 방언 자료의 녹음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내에 있는 음성언어정보연구실의 방음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일본 타악코포레이션사의 타스캄(TASCAM) DA-20MK II DAT 녹음기와 슈어(SHURE)사의 SM 58 다이내믹 마이크를 사용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22,050Hz 표본 추출률, 16bit 양자화로 디지털화하였다.

녹음 시작 전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어 조사자와의 대화에 익숙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녹음을 시작하였으며, 조사자가 질문을 하고 피험자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녹음을 진행하였다.⁴⁾ 조사하고자 하는 단어의 어형을 보여 주고 읽게 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일상 발화를 얻을 수 없고, 특히 대구 방언 화자의 경우 방언 고유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질의·응답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자에 이끌린 발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유도된 자유 발화를 통해 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2.4. 측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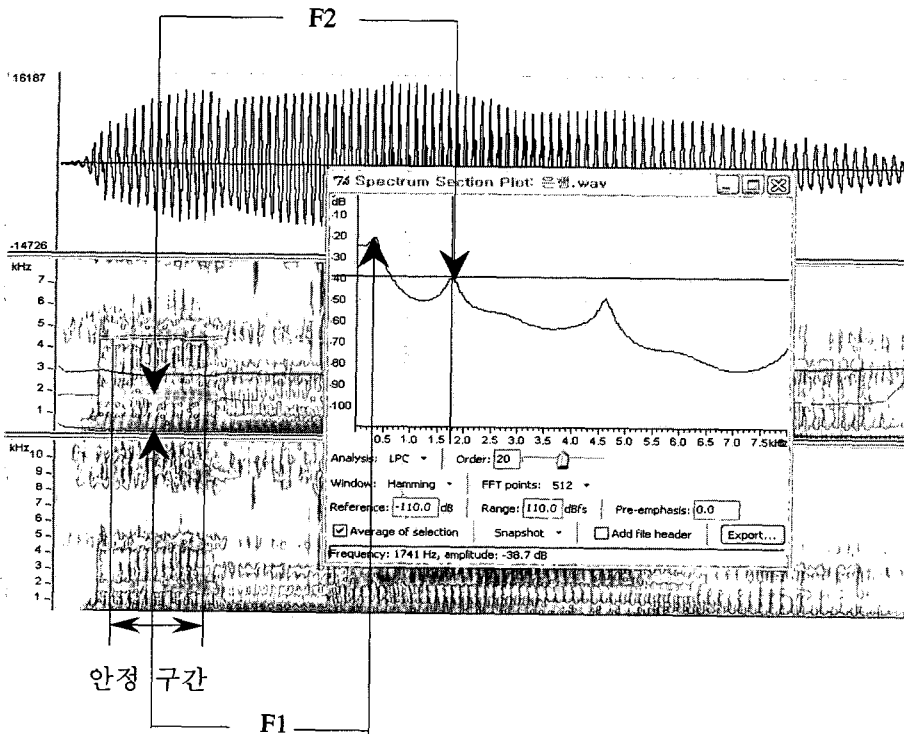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모음의 음향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모음의 F1과 F2를 측정하였다. 포먼트는 'Centre for Speech Technology'의 'Wavesurfer 1.8.3'의 'formant plot' 기능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포먼트의 측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안정 구간의 중간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포먼트 값은 LPC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때 LPC의 차수는 20으로 하였다.⁵⁾

4) 실험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은 원활히 진행되었다. 질문과 답변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자: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 중에서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피험자: 아내.

5) 이 연구의 포먼트 측정에서 FFT point, Pre-emphasis, LPC order는 Wavesurfer 1.8.3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한 것이다. 이 부분을 상세히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그림 1> 포먼트 측정 방법

3. 연구 결과

3.1. 40대 대구 방언 화자의 단모음

40대 대구 방언 화자의 단모음 포먼트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제시한 것이 <표 3>이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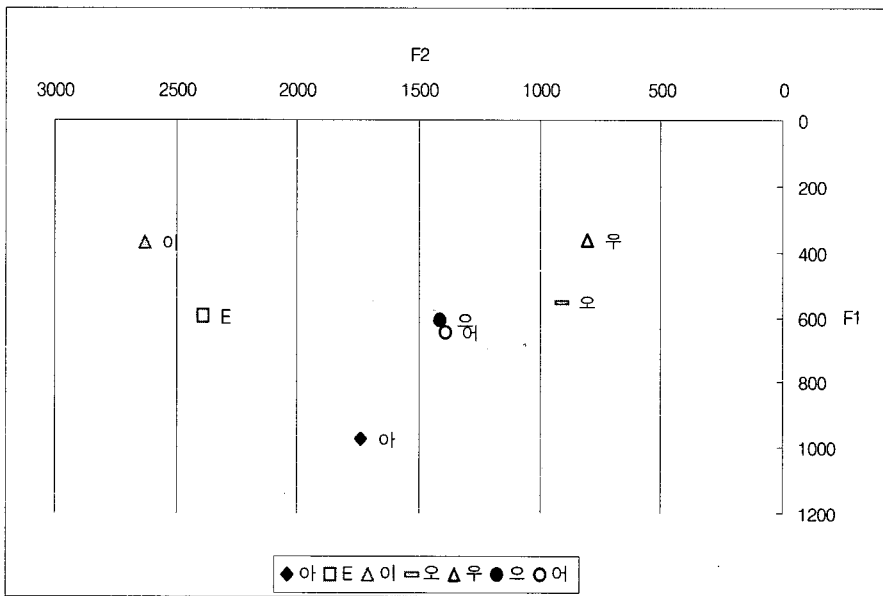
- 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화자의 일부 발화에서 필자가 의도한 HL 이외의 성조형이 나타났다. 성조형이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실현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단어의 목록과 수는 다음과 같다.

- 아내: 대구 20대 - 2명의 화자가 1회씩 (총 2회, 5%)
- 애도: 대구 20대 - 2명의 화자가 1회씩 (총 2회, 5%)
 - 대구 40대 - 1명의 화자가 1회, 1명의 화자가 2회 (총 3회, 7.5%)
- 애로: 대구 20대 - 1명의 화자가 2회 (총 2회, 5%)
 - 대구 40대 - 1명의 화자가 1회 (총 1회, 2.5%)
- 애송: 대구 20대 - 1명의 화자가 1회 (총 1회, 2.5%)
 - 대구 40대 - 1명의 화자가 1회, 2명의 화자가 2회씩 (총 5회, 12.5%)

<표 3> 40대 대구 방언 화자들의 F1과 F2 값과 표준 편차(Hz)

	이	E	아	으	어	우	오
F1	373 (54.36)	599.2 (69.24)	972.4 (92.04)	588.9 (120.12)	645.8 (104.13)	363.3 (60.13)	555.7 (71.71)
F2	2629.5 (148.03)	2385.6 (158.25)	1738.5 (100.53)	1434 (199.89)	1394.9 (188.83)	807.4 (129.22)	910.8 (124.56)

<표 3>의 값을 토대로 포먼트 도표를 그린 것이 <그림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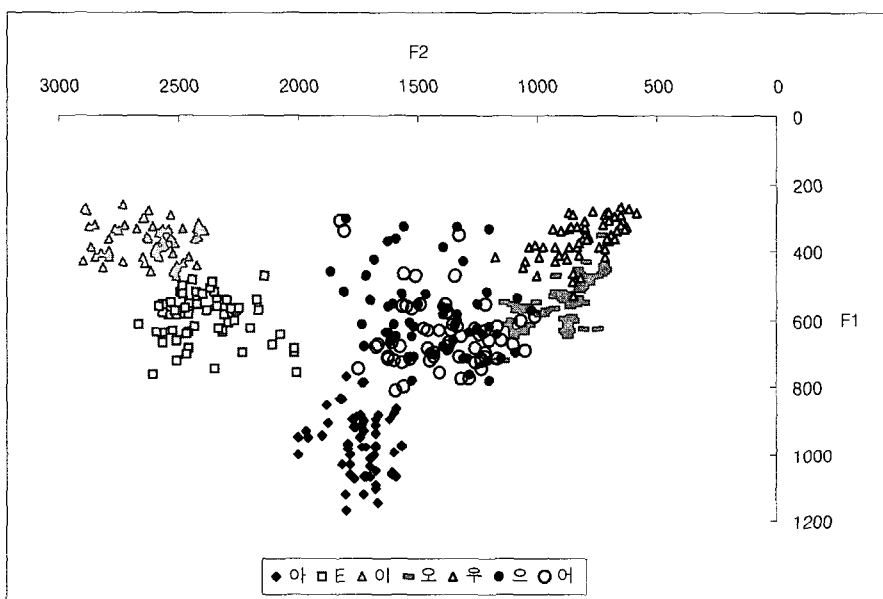
<그림 2> 40대 대구 방언 화자들의 포먼트 평균값(Hz)

- 우도: 대구 20대 - 2명의 화자가 1회씩, 2명의 화자가 2회씩 (총 6회, 15%)
 대구 40대 - 1명의 화자가 2회 (총 2회, 5%)
- 우수: 대구 20대 - 1명의 화자가 1회 (총 1회, 2.5%)
 대구 40대 - 1명의 화자가 1회 (총 1회, 2.5%)
- 오염: 대구 40대 - 1명의 화자가 1회 (총 1회, 2.5%)
- 은혜: 대구 40대 - 1명의 화자가 1회 (총 1회, 2.5%)
- 올해: 대구 40대 - 1명의 화자가 1회 (총 1회, 2.5%)

성조 실현의 차이는 특정 화자에게만 집중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며, 일부 어휘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성조에 대한 직관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발화 실수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조 실현이 화자별로 차이가 나는 단어는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많으며, 대체로 한자어 중에서도 빈도가 낮은 단어(‘우도’나 ‘애송’과 같이)가 성조 실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40대 대구 방언 화자들의 포먼트 값에서 가장 극단값을 보이는 모음은 /i/, ɪ, ɨ/이다. 이를 기준으로 /e/는 /i/와 가까운 위치에서, /ɯ/는 /ɪ/와 가까운 위치에서 각 모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나타났다. 중설 위치에 있는 ‘ㅡ’와 ‘ㅣ’는 두 모음의 평균값이 유사하게 나타났다.⁷⁾

<그림 2>가 각 포먼트의 평균값으로 포먼트 도표를 그린 것이었다면, <그림 3>은 모든 포먼트 측정치를 각각의 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질적인 모음의 실현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림 3> 40대 대구 방언 화자들의 포먼트 값(Hz)

<그림 3>에서 나머지 모음들은 각각의 조음 영역이 분화되어 있지만 ‘ㅡ’와 ‘ㅣ’는 분화되어 있지 않고 그 조음 영역이 겹침을 알 수 있다. 또한 ‘ㅡ’와 ‘ㅣ’의 조음 영역이 다른 모음에 비해 매우 넓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20대 대구 방언 화자의 단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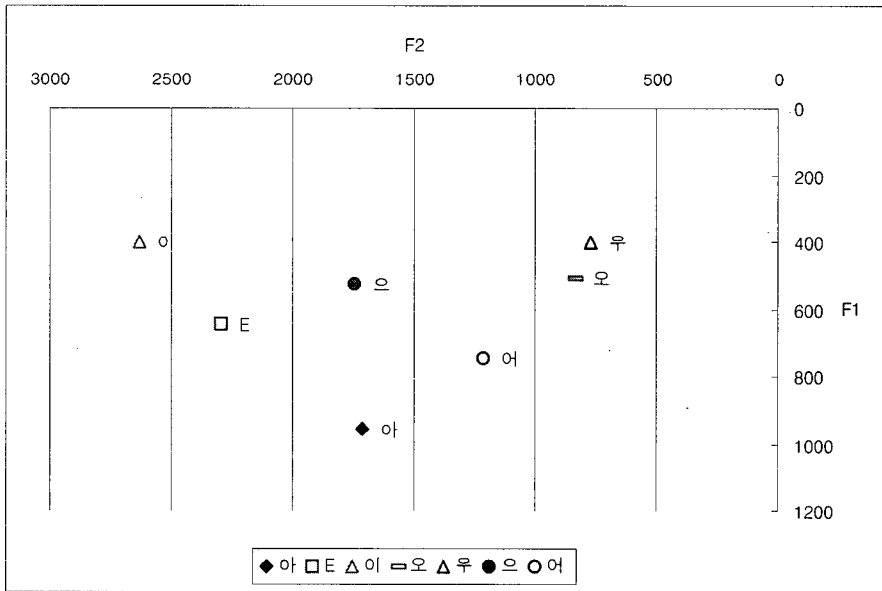
20대 대구 방언 화자의 단모음 포먼트를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제시한 것이 <표 4>이다.

7) 40대 대구 방언 화자는 ‘ㅡ’와 ‘ㅣ’를 변별하지 못한다. 이는 이 화자들의 음소 목록에 ‘ㅡ’와 ‘ㅣ’가 개별적으로 들어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40대 대구 방언 화자의 ‘ㅡ’와 ‘ㅣ’는 /ɨ/, /ɨ/가 아니라 ‘ㅡ’, ‘ㅣ’로 표시하였다.

<표 4> 20대 대구 방언 화자들의 F1과 F2 값과 표준 편차(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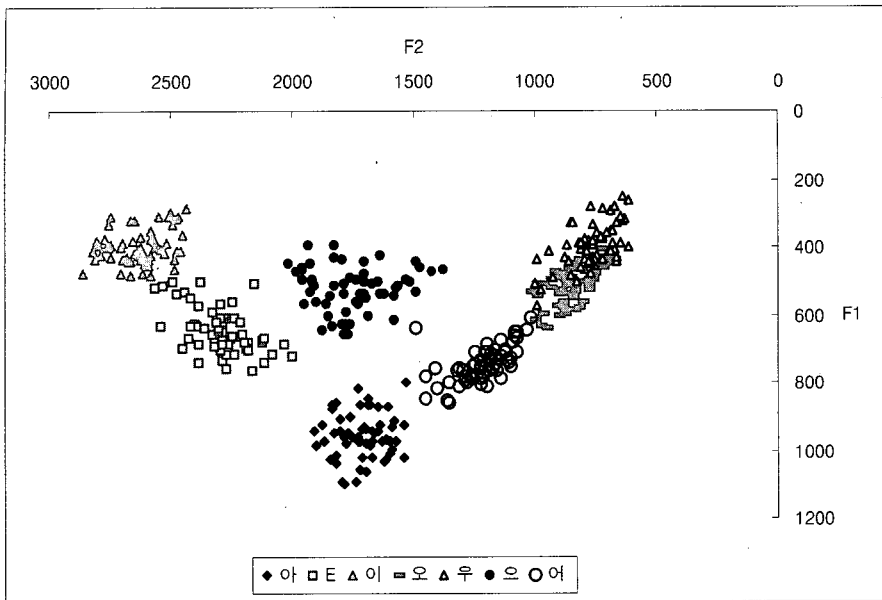
	이	E	아	으	어	우	오
F1	398.4 (49.77)	644.5 (66.08)	955 (66.95)	524.1 (66.68)	744.8 (54.95)	397.5 (56.72)	506.5 (57.69)
F2	2629.3 (107.95)	2291.4 (121.03)	1712.7 (93.8)	1749.6 (150.69)	1213 (106.16)	766.7 (96.28)	838.8 (88.55)

<표 4>에 나타난 포먼트 평균값으로 도표를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20대 대구 방언 화자의 경우 대부분의 모음들이 다른 모음들과 일정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ɪ/와 /ɨ/는 가까운 위치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40대 화자와 달리 /ɨ/와 /ɨ/는 각각의 안정 공간을 가지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대구 방언의 20대 화자들은 윗세대와 달리 /ɨ/와 /ɨ/를 변별적으로 조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20대 대구 방언 화자들의 포먼트 평균값(Hz)

<그림 5>에서 20대 대구 방언 화자들의 각 모음들은 /ɪ/와 /ɨ/의 실현 영역이 일부 겹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 대구 방언 화자에서 ‘ɨ’와 ‘ɨ’가 조음 영역이 겹쳐 나타나던 것과 달리 두 모음의 조음 영역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대 화자의 경우 /ɨ/와 /ɨ/의 조음 영역의 크기가 40대 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나서, 다른 모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5> 20대 대구 방언 화자들의 포먼트 값(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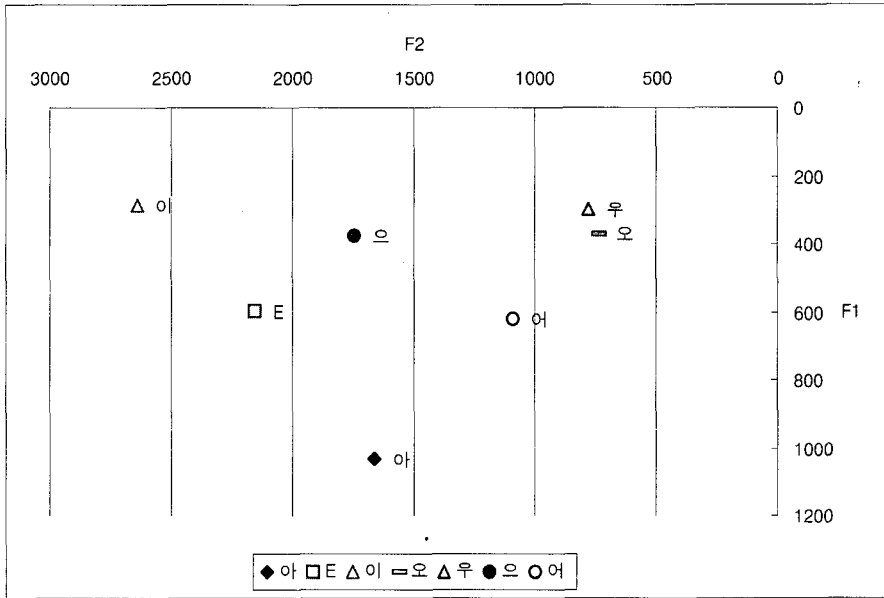
3.3. 20대 서울 방언 화자의 단모음

20대 서울 방언 화자의 단모음 포먼트를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제시한 것이 <표 5>이다.

<표 5> 20대 서울 방언 화자들의 F1과 F2 값과 표준 편차(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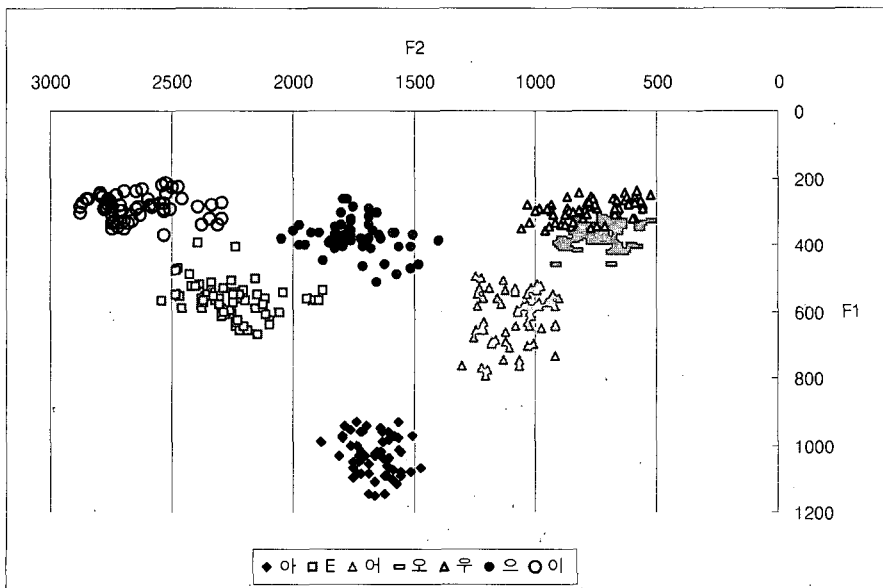
	이	E	아	으	어	우	오
F1	288 (36.84)	594.5 (53.52)	1023.5 (57.73)	377.3 (50.05)	620.2 (79.73)	296.6 (32.12)	371.4 (36.96)
F2	2638.8 (153.94)	2156.5 (147.38)	1664 (84)	1745.2 (131.61)	1088.5 (108.95)	776 (140.38)	737.2 (99.79)

<표 5>에 나타난 포먼트 평균값으로 도표를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다. 20대 서울 방언 화자는 대부분의 모음들이 다른 모음들과 일정 거리 이상의 간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ɪ/와 /ɨ/는 다른 모음들에 비해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나타나고 있다. /i/와 /e/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ɨ/와 /ɛ/도 각각의 안정 공간을 가지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20대 서울 방언 화자의 포먼트 평균값(Hz)

<그림 7>에서 20대 서울 방언 화자의 나머지 모음들은 모두 독자적인 실현 공간을 가지고 있고, /T/와 /L/의 실현 공간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겹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모음의 조음 영역의 크기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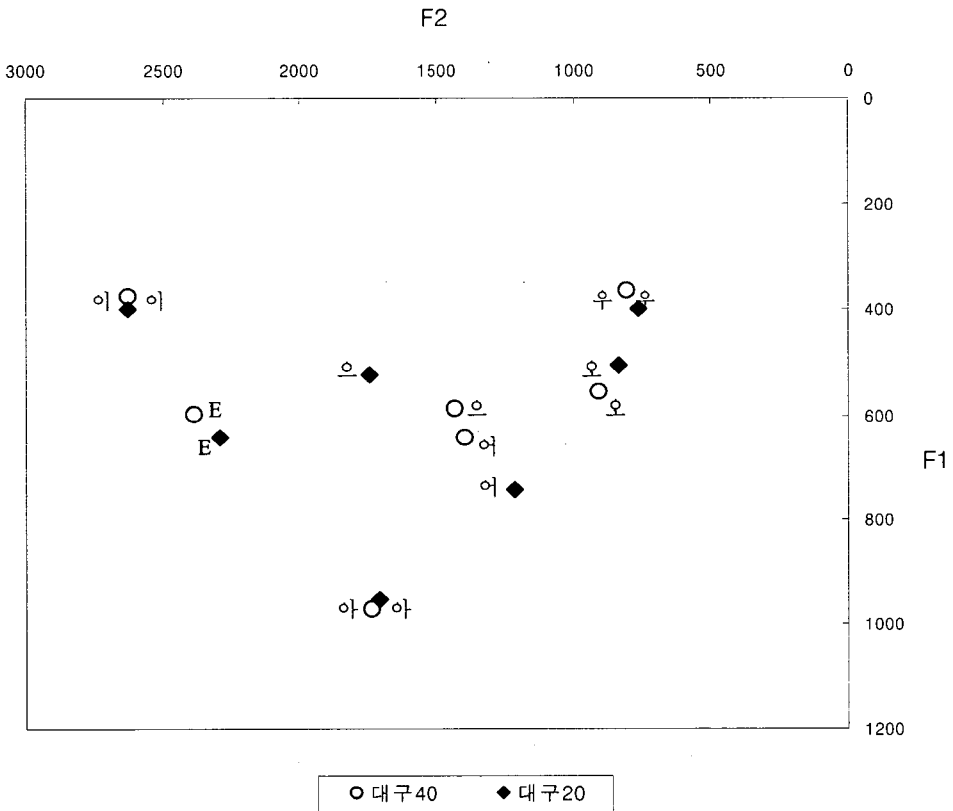


<그림 7> 20대 서울 방언 화자의 포먼트 값(Hz)

4. 논의

4.1. 대구 방언의 세대 간 단모음 비교

대구 방언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세대의 단모음 포트먼트 측정치를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음향적 모음 실현 공간에서 극단값을 가지는 /i/, ɪ, ʌ/는 세대 간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E, ɛ, ɨ(ɝ), ɯ/에서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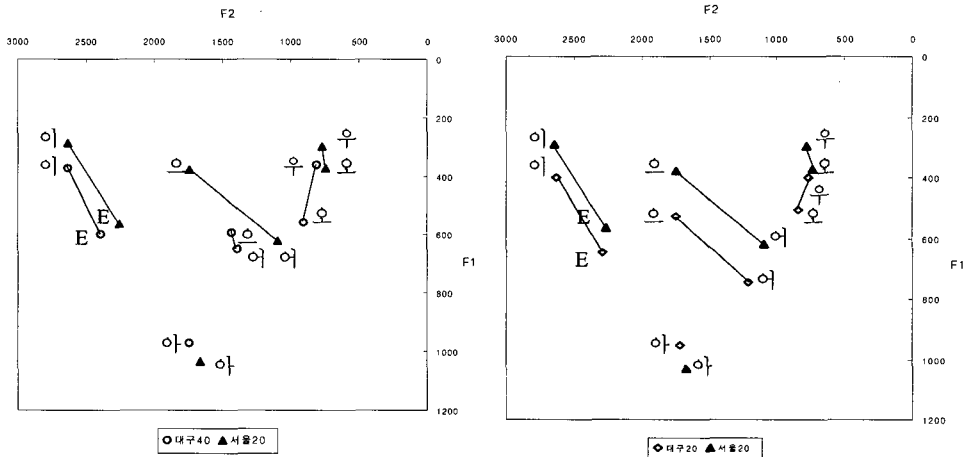
<그림 8> 40대 대구 방언 화자와 20대 대구 방언 화자의 포트먼트 평균값 비교(Hz)

40대 대구 방언 화자는 /E/는 /i/와 가까운 곳에서, /ɯ/는 /ɪ/와 가까운 곳에서 각각의 안정 공간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리고 ‘ㅡ’와 ‘ㅣ’는 매우 가까운 위치에 나타나며 각 모음이 안정 공간 없이 겹쳐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40대 대구 방언 화자는 ‘ㅡ’와 ‘ㅣ’를 변별하여 발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구 방언이 6모음 체계를 가진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즉, 40대 대구 방언 화자는 /i, E, ɝ, ɪ, ɪ, ɯ/의 6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 대구 방언 화자에서 /i/와 /E/ 사이의 거리는 40대 화자에 비해 멀게 나타났다. 이는 /E/의 하강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리고 /ɹ/는 /ɿ/와 더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ɹ/의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ɿ/와 /ɿ/는 두 모음 사이가 멀어져서 각각의 안정 공간을 가지고 있다. 40대 화자에 비해 20대 화자에서 개구도를 보여주는 F1값은 /ɿ/가 더 낮고 /ɿ/는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후설의 위치를 보여주는 F2값은 /ɿ/가 더 높고 /ɿ/는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ɿ/와 /ɿ/의 조음 영역이 40대 화자에서는 넓게 나타났지만 20대 화자는 상대적으로 좁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조음 영역이 좁아졌다는 것은 20대 대구 방언 화자의 /ɿ/와 /ɿ/가 40대 화자에 비해 안정적으로 조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40대 화자와 달리 20대 화자에게는 이 두 단모음이 음소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방언 내에서도 세대 간에 모음 실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20대 대구 방언 화자는 이전 세대와 달리 /i, E, ɿ, ɿ, ɿ, ɿ, ɿ/의 7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대구 방언과 서울 방언의 단모음 비교

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위해 20대 서울 방언 화자와 대구 방언 화자의 단모음 포먼트 값을 비교한 것이 <그림 9>이다.



<그림 9> 40대 대구 방언 화자와 20대 서울 방언 화자(좌), 20대 대구 방언 화자와 20대 서울 방언 화자(우)의 포먼트 평균값 비교(Hz)

40대 대구 방언 화자와 20대 서울 방언 화자를 비교하고, 20대 대구 방언 화자와 20대 서울 방언 화자를 비교해 보면 20대 대구 방언 화자의 단모음 실현 양상이 20대 서울 방언 화자와 유사해진 양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l/와 /E/의 경우 40대 대구 방언 화자에서 두 모음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웠다가 20대 화자에 와서 멀어졌다. 그리고 20대 서울 방언 화자가 대구 방언 화자들보다 두 모음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20대 대구 방언 화자의 /l/와 /E/의 실현 양상이 서울 방언 화자의 /l/와 /E/의 실현 양상과 유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T/와 /L/의 경우도 20대 대구 방언 화자의 F1과 F2의 간격이 모두 40대 화자보다 좁아져서 두 모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20대 서울 방언 화자가 대구 방언 화자들보다 두 모음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즉, 20대 대구 방언 화자의 /T/와 /L/의 실현 양상이 서울 방언 화자의 /T/와 /L/의 실현 양상과 유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r/와 /r/의 경우, 40대 대구 방언 화자와 달리 20대 대구 방언 화자는 두 모음을 변별적으로 조음하고 있으며, 따라서 포먼트 도표에서 두 모음 사이의 거리도 멀게 나타났다. 20대 서울 방언 화자와 비교해 보면 서울 방언에서 두 모음 사이의 간격이 20대 대구 방언 화자보다 더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20대 대구 방언 화자가 40대 화자와 달리 /r/와 /r/를 변별하고 있는 것도 서울 방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모음 체계는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어가 동남 방언의 6모음 체계와 같은 안정적인 체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2]. 하지만 이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안정적인 6모음 체계를 유지하고 있던 동남 방언권에서 젊은 세대가 /r/와 /r/를 변별하는 7모음 체계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언어 외적인 요인(교육, 대중 매체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서울 방언과의 잦은 접촉)에 의해서 대구 방언이 서울 방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체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대구 방언의 세대별 단모음의 실현 양상에 대하여 살피고, 단모음에서 세대 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대구 방언의 단모음 실현 양상이 세대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울 방언의 영향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서울 방언의 같은 세대의 발화도 함께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40대 대구 방언 화자는 6개의 변별적인 모음을 가지고 있으나, 20대 대구 방언 화자는 40대 화자와 단모음의 실현이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 7개의 변별적인 모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대구 방언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대구 방

언의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7개의 음소가 서울 방언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l/와 /E/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 /ɹ/와 /T/ 사이가 가까워진 것, /ɹ/와 /r/를 음소로서 명확하게 구별하게 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서울 방언의 영향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여성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한 방언에 대한 완전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성 화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여성 화자는 외부 언어와의 접촉에서 영향을 많이 받지만, 남성 화자의 경우 고유의 방언을 더 많이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성 화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언어의 변화 양상을 더 잘 살펴볼 수 있고, 남성 화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변화를 덜 입은 방언의 모습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연구의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각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40대 대구 방언 화자가 서울 방언과 달리 /ɹ/와 /r/를 변별적으로 발화하지 못하는데, 과연 청취적으로도 이 두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화 실험만 하였으므로 후행 과제로 20대 대구 방언 화자와 40대 대구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ɹ/와 /r/에 대한 지각 실험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문헌

- [1] 백두현,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서울: 태학사, 1992.
- [2] 광충구,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Vol. 41, pp.59-92, 2003.
- [3] 김무식, “경상도 방언 /r/와 /ɹ/ 모음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4] 박종덕, *경상도 방언의 모음 체계 변천사*, 서울: 박이정, 2005.
- [5] 최한조, “대구 방언의 음운 변동과 성조와의 관계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6] 배주채, *국어 음운론 개설*, 서울: 신구문화사, 1996.
- [7] 신지영, *우리말 소리의 체계: 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서울: 한국문화사, 2003.
- [8] 권경근, “현대 국어에서의 모음 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젊은 세대의 말을 대상으로”, *언어학*, Vol. 30, pp.29-48, 2001.

접수일자: 2006년 2월 15일

게재결정: 2006년 3월 22일

▶ 장혜진(Hyejin Jang) : 교신저자

주소: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A 107호

소속: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전화: 02) 3290-2505

FAX: 02) 926-8385

E-mail: jina49@korea.ac.kr

▶ 신지영(Jiyoung Shin)

주소: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소속: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02) 3290-1973

FAX: 02) 926-8385

E-mail: shinjy@korea.ac.kr